

# 서울대 인문 398·자연 399점 지원 가능

### 광주시교육청, 올해 수능 실채점 결과 분석

### 전남대 영어교육 365·의예과 406점 예상

서울대 인문계열은 398점 내외, 자연계열은 399점 내외(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에서 지원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고3 재학생 기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은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 한국사 제외)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398점 내외, 자연계열 39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

른 과탐 I+II, II+II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이다.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은 391점 내외, 자연계열은 395점 내외로 나타났다.

광주교육대학교 365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GIST) 394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98점 내외로 예측했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2점, 국어교육과 360점, 행정학과 358점, 경영학부 355점, 국어국문학과 347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 340점 내외로 봤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06점, 치의학전 문대학원(치의학과) 403점, 약학부 400점, 수의예과 396점, 전기공학과 383점, 간호학과 363점 등이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경찰행정학과 341점, 영어교육과 335점, 국어교육과 327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 292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04점, 치의예과 401점, 약학과 399점, 간호학과 345점, 수학교육과 326점,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 290점 안팎이다.

분석 결과 올해 수능은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126점, 수학 133점으로 분석했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전년도(6.25%)보다 증가한 7.83%이지만, 2, 3등급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목별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 '언어와매체'가 134점으로 전년도 149점보다 15점 하

락했고, '화법과작문'은 130점으로 전년도(147점)보다 17점 하락해 변별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 '미적분'은 145점(전년도 147점), '기하'는 142점(전년도 147점), '확률과통계'는 142점(전년도 144점)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하락했다.

사신타탐구는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65~74점, 과학탐구는 67~75점으로 일부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이번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석자료와 배치 기준 점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의한 것이며, 수시 아열 인원 발표 시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며 "단순 지원 가능 기준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해돋이 07:33 해질 17:21  
달돋음 22:41 달짐 11:56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3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 청소도 좋아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하)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60-30	목포	05:11	10:35
목포	60-30		17:59	23:30
순천	30-30	여수	12:47	06:07
여수	30-30		--:--	18:56

**주한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 강원(영동)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2월 15/목	(-3/7)	(-7/2)	(-5/5)	(-7/4)	(-5/6)	(4/11)
16/금	(-1/3)	(-10/-1)	(-3/5)	(-6/0)	(-3/3)	(6/8)
17/토	(-3/3)	(-9/-1)	(-4/4)	(-7/0)	(-4/3)	(4/7)

▶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 나고야소송지원회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이해불가”

### 강제동원 배상 촉구·역사기금 전달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참담하고 최후합니다.”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橋本) 공동대표는 13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의식해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취소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훈 취소와 함께 배상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교류가 끊긴 지 3년 만에 광주를 방문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배상에 대해 지지부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4분이 돌아가셨고, 제소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 기업은 방관자 입장에서 보고만 있으면 된다”며 “일본인으로서 참담하고 최후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모임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애리기자

인권상 수상(모란장 서훈) 취소 등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불과 3개월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는데 돌연 태도가 변했다”며 “강제노역 피해 배상 등에 대

해 지지않고 나아갈것다”고 피력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이 실시할 모금한 (가칭)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성금 1백만엔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후대로 계승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광주에 건립하기 위한 논의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왔다. /안태호수습기자

# 북구,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13일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광주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

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와 역량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 기초지자체 평가는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배출업소 환

경관리 ▲위험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대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기초지자체 2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안재영기자

# 광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광주 광산구는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광산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로 주차계도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광산구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차가능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거나 부정 사용된 행위 등을 살피고,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산되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근기자

# 남구, 생명사랑 약국 운영한다

### 관내 34곳 참여...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광주 남구는 남구 약사회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명경시 풍조를 예방하고, 우울증상 등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사랑 약국’을 운영한다.

13일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곳 센터는 최근 남구약사회와 손잡고 생명사랑 약국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험성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약국을 거점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남구 약사회에 등록된 약국 가운데 생명사랑 약국 운영에 동참하는 약국은 총 34곳이다. 이곳 약국에서는 수면제 등을 수시 과다 구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용법을 안내하고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자살 위험신고 및 대처방법,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오복기자

**여보야**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 빅데이터와 최신 AI 배우자 찾기
-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ONE store